

월/요/광/장

김 병 술



식품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약 4조 달러로 자동차 시장(1.6조 달러), IT시장(2.8조 달러) 보다 각각 2.5배, 1.4배나 크며, 우리나라의 경우 총생산액 100조원, 고용 인력 163만명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다. 그리고 매출액 1억원 증가 시 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유발 효과가 전산업평균(2.2명)에 비해 1.6배나 높다.

상 신장한 막걸리의 경우 대부분(71.9%)을 경기도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그러나 광주는 역사적으로 미향이자 여향이며, 전남은 친환경인증면적이 전국의

전통식품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절반이 넘고 다양한 친환경물질의 보고로 광주·전남은 전통식품산업을 기능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먼저,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에 따라 전통식품산업을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다음, 1994년 광주에 김치축제가 창설되어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광주김치타운이 김치박물관, 김치가공공장, 김치 체험장 등을 갖추고 2010년 완공될 예정이며, 세계김치연구소 또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리고 2009년 기준으로 전남의 친환경쌀 생산량은 454만t으로 전국의 20.5%에 이르며, 2010년 중

연간 생산능력 2400t 규모의 친환경쌀 제분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김치는 전북, 서울, 부산 등에서도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는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기존 김치산업을 재정립하고 특화부문의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위생 기준을 확립하고 품질관리 및 규격기준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 저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효시의 가스발생 억제기술을 확립하여 통조림김치를 개발하고, 복원력을 가진 마른 김치를 개발하여 수출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종균김치에 의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고기능성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 소재 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떡은 '빵을 대체하는 세계인의 건강식품'이라는 비전과 기능성 떡 및 반제품(생지) 수출로 쌀소비율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수출시장은 해외 OEM 수주 및 세계한상망, 재외공관, 기업의 해외지사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내수시장은 떡전 문점, 프랜차이즈, 단체급식 및 공황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선결한

이후 생활밀착형 떡문화공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면역 증강, 노화 방지, 혈액순환 개선 등 기능성 확보와 냉동기술과 해빙기술의 표준화는 떡산업 글로벌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본다.

막걸리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충족시키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시장별로 커스터마이징하여 떡과 같이 기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전통식품산업은 호남권, 그중에서도 광주에서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선점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 자본력 및 물류·교통망 등 산업기반 시설로 보아 서남권에 산재된 전통식품산업을 광주에 집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은 광주시가 우위에 있는 김치, 떡 산업에 집중하고 막걸리까지 포함시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공동인프라 구축과 기술,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통식품산업 부문에서 수출 4천만 달러를 달성하고, 시장규모를 현재의 500억원에서 1,000억으로 확대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1000개 이상, 3600개까지 창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MB정권 '호남 확대 인사' 해도 너무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광주·전남 출신의 '확대 인사'가 도를 넘어지고 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와 장관급 인사에서 철저히 소외된 데 이어 차관급 인사에서마저 배제돼 "광주·전남인사는 씨가 말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단행된 청와대 비서관 이상 61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하고 전복을 포함하여 고차 6명이다. 반면 영남 출신은 40%가 넘는 26명에 달한다. 지난 8·8 개각에서도 광주·전남인사의 중용을 기대했으나 광주 출신의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장관에 기용되는데 그쳐 '소외'를 실감해야 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여당 대표, 4대 권력기관 가운데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3대 기관의 수장이 영남 출신이란 사실은 '탕평인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사흘 전 단행된 차관급 인사를 보면 더욱더 가관이 다. 전체 차관급 23명 가운데 영남 출신

이 11명에 달하고 호남은 3명에 불과할 뿐이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국무차관이 지경부 2차관에 내정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는 영남 편중인사의 상징적 인물이 아닌가. 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을 통해 국민 통합을 강화하고 계층간 이동과 소통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역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고려한 '탕평인사'가 아니라면 소통을 통한 계층간의 화합과 국민 통합은 물 건너 가는 것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도 이런 편중인사에서 비롯됐다. '고소영'에서 영모화, 선진국민 영남 출신이란 사실은 '탕평인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사흘 전 단행된 차관급 인사를 보면 더욱더 가관이 다. 전체 차관급 23명 가운데 영남 출신

악화되는 지방재정 이제 정부가 나서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추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보다 1.4%나 악화됐다고 한다. 특히 광주시(43.2%)와 전남도(11.5%)는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고흥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인 8.6%에 불과하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 미만이 6개 군에 달하고 1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광주에서는 봉곡·남구, 전남에서는 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장성·완도 등 12곳이나 된다. 광주지역 자치구의 사정도 심각하다. 5개 자치구의 부족 예산은 모두 1400억 원에 이르고, 당장 발동에 떨어진 예산만 800억원에 달한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악화될 때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지방 확대와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있다. 정부가 강제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긴 게 큰 요인이다.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환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심의·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회는 예산 심의에 있어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되며, 예산 편성과정부 주원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단체장의 후보 수단으로 전략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필요하다. 전시성 행사는 예산 낭비의 전범이다. 단체장들은 열악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파탄나면 결국 그 고통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하란 얘기다.

법조칼럼

최 창 훈



몇 년 전 가족의 권유로 성당을 나가게 되었다. 지금은 냉담자이지만, 그때 교리공부를 하면서 몇 구절 읽어 본 성경 구절을 기억해 보면, 대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판사가 재판하면서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법원이 재판모습을 촬영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터에 접한 보도라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판사는 당사자가 하여야 할 말을 다 듣지만, 하는 말을 다 들을 수는 없다. 오히려 판사는 당사자로 하여금 유익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고, 그런 의미에서 판사가 종종 당사자의 말을 끊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자주 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른바 화자인 요카난 랍비와 검투사인 레시 라키스의 이야기는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 처남·매부 사이인 두 사람은 아주 사

싸움의 기술

언어는 독백이 아니고서는 다른 쪽에 전달되는 속성을 가지므로 사용된 언어가 적절하지 여부는 그 언어를 전달받는 쪽에서 바라보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의 언어 사용의 잘 잘못에 관한 시비에 대하여는 판사가 어떠한 반박을 하더라도 동조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신중한 언행이 구사될 것으로 믿자.

그런데 법정엔 판사만이 말을 하는 공간은 아니다. 구술변론이 정착되면서 당사자가 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재판에서 당사자의 말은 판사와 상대방 당사자 양쪽으로 향하고 있다. 당사자가 한 말이 판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다르다.

먼저, 당사자가 소위 '칼자루'를 쥐고 있는 판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점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가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판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말하는 것이다.

소한 상황에 관하여 논쟁을 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져 결국 '풀어줄 수 없는 감'을 건넸다. 두 사람 모두 패배를 보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름을 하게 되더라도 공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고, 논쟁 자체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적인 일들을 거론하며 상대방을 깔아내리려고 하거나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유대교 율법학자인 요셉 텔러슈킨이 쓴 어느 글에 의하면, 유대교의 가르침에 허를 '칼'에 비유하지 않고 '화살'에 비유한 이유에 대하여 어느 랍비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고 한다. "누가 제 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다가도 친구가 빌며 용서를 구하면, 화가 누그러져 칼을 도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쓴 화살은 아무리 나중에 후회를 한다 해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판 당사자의 말과 글도 세련되어질 때가 되었다. 올 가을이면 우리나라에서 '2010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판사>

기 고

문 금 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이끄는 핵심 주체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먼저, 그 한 축인 광주시의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되었고, 또 다른 축인 광주시의회의도 의정단이 구성되고 상임위가 구성되었으며, 시민단체 등도 각자의 영역에서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광주가 지향하고 있는 '창조도시'는 무엇일까? 창조도시의 개념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기보다 이론적, 경험적인 고찰을 통해 논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창조도시 전략은 유럽

수 활동공간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 도시들은 누구나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주시에 민선 5기 새로운 도시시장의 목표로 창조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시민 모두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광주의 정신과 문화, 제도와 상품, 그리고 도시경관과 행정형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물론 세계의 모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는 경제와 문화, 인권이 유기적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길

에서 시작했다. 유럽사회는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이 쇠퇴하고 실업이 증가하여 복지국가 시스템이 위기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조도시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이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핀란드의 헬싱키, 역사에 근거한 문화지구 조성에 성공한 아일랜드의 더블린, 친환경산업의 육성으로 UN지정 환경도시가 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문화와 책에 관한 자원을 집적화하여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등이 대표적인 창조도시다. 도심 건축물의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를 첨단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유럽의 문화수도 '볼로냐'도 여기에 속한다.

창조도시를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예술적 활동을 통해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도시 전체가 지역민과 방문객의 문화에

로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가능한 일이다.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문화를 소비하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생겨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옛 전남도청 주변과 광주천을 비롯한 구 도심권에 문화적 색채가 가미되는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는 창조도시 건설에 필요한 우수한 두뇌와 예술적인 끼,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있다. 창조도시만이 광주의 미래요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이 아닌 세계인들이 찾고 싶고 보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핵심 주체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가 광주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주인공의식을 갖고 매진에 적극적으 관심 갖고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광주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1등 지상주의가 주는 폐해 이젠 뒤돌아볼 때

우리는 누구나 1등 하길 원하며 1등을 최고로 우대하고 1등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1등 지상주의의 1등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같은 1등주의가 오늘날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1등 지상주의가 주는 폐해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예적 자살증 증가이다. 1등 혹은 그 상위 그룹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괴감과 빠져든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주변

에서는 오로지 1등과 상위그룹이 시대 최고의 양 추켜세우며 오로지 그들 위주로만 모든 것들이 펼쳐지므로 하위그룹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점점 낙담해지며 소외감을 느낀다.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며 화풍이 살인 형태로 나타나거나, 결국 우울증으로 번지고 최종적으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 그리고 승자만을 인정해주는 문화적 구조는 이제 정말 우리 사회 모두가 진정으로 다시 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진경·광주시 북구 용봉동

도로주행전 안전점검하는 습관 들여야

얼마 전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앞에서 난데없는 하얀 물체가 날라와서 내 차의 앞 유리에 철썩 달라붙는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 있어 안 보이는 상황이 됐고 급박한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내 눈앞에서 시야를 가린 건 흰 티슈였다. 앞차에서 무심코 버린듯한데 그게 마치 빗물이 좀 젖어있던 내 앞 유리에 철썩 달라붙어 버린 것이다. 도로에서 큰 물체가 떨어지는 것만 위험

한 게 아니다. 일부러 버렸는지, 또는 실수에 의해 창밖으로 날아간 것이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그 가족들을 전부 죽게 할 수도 있는 중대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

차가 도로에 나오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이 필수이며, 도로에서는 자신의 실수로 타인의 목숨을 뺏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 운전자뿐 아니라 그 동승자들도 모두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동동

無 等 鼓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기후의 지배를 받는다.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식성이 변하고 동물의 분포도 달라진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의식주는 물론 체질과 기질까지 기후의 영향권에 놓여있다.

광주·전남의 기후가 급속히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 사계절 구분이 애매해지고, 연평균 기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여름은 무덥고 길어지는 반면 겨울은 따뜻하고 짧아지는 추세다.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는 지난해 목표와 여수 등 남해안 지역을 아열대 기후 후로 분류했다. 중국 화남이나 일본 류슈, 이집트 등과 비슷한 기후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지는가 하면 농작물 분포도 점점 북상하는 추세다. 해남에서는 열대 과일인 파파야와 구아바를 재배하고 있다. 월출산에서는 남방계 곤충인 물결부전나비가 토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해충까지도 아열대종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다. 온난화는 가로수 수종도 바꾸고 있 <정후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아열대 전남



주위시대 열대나 아열대의 식민지로 이주한 백인들 중에는 본래 지니고 있던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잃어 지도계급에서 탈락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응할 수 없었던 탓이다. 우리의 미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대비를 서둘러야겠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printing information.